

한·아제르바이잔 경제인 오찬간담회 연설

존경하는 아르투르 라시자데 총리,

에밀 마지도프 수출투자진흥청 사장,

그리고 손경식 회장을 비롯한 양국 경제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저를 따뜻하게 맞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아제르바이잔을 처음 방문합니다. 저와 동행한 경제인들도 처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함께 있으니 마치 오랜 친구가 모여 좋은 일을 논의하는 것처럼 다정해 보입니다. 오늘 오전 여러분들 사이의 모임에서 서로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대한 많은 대화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까?

사업에 관한 이야기는 조금 있다 드리고, 먼저 우리나라를 소개할까 합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하늘이 맑고 바다가 푸른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이곳 아제르바이잔과 아주 비슷합니다. 특히 이곳 바쿠의 바다는 제 고향 부산의 바다와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천년 동안 수백 번의 침략을 받고 수십 년간의 지배를 받았 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많은 고난을 겪고 살아왔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

음 맨주먹에서 출발해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그래서 오늘의 경제발전을 이뤘습니다. 섬유·조선·자동차·전자·반도체·통신 등 여러 분야에서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실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건설, 도시계획, 자원개발 분야에서도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1천만 인구를 갖고 있고 주변도시를 포함하면 2천만 인구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전역이 동북아 중심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새 행정수도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인구 50만으로 예정된 이 도시에 건설, 도시계획, 환경, 문화, 정보통신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 기술을 집적시켜 세계 최고의 도시를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국에 인구 5만 정도의 혁신도시를 10개 정도 건설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행정도시와 혁신도시 건설과정에서 한국이 가진 모든 기술을 집중시켜 한국의 문화와 환경, 삶의 질을 한 단계 도약시키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6년쯤 뒤에 한국을 방문하면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첨단 문명도시를 서울과 지방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식민지 역사와 동족끼리 전쟁을 치르는 내전까지 겪는 완전한 폐허 위에서 이와 같은 꿈을 가꿔 왔고 앞으로 이를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국 자랑을 한 것 같지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국의 자랑이 아니라 아제르바이잔의 미래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이곳 아제르바이잔에 도착했고, 오늘 오전 알리에프 대통령과 회담을 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의 모습을 보고 대통령과 만나면서 아제르바이잔의 미래와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은 한국이 가진 모든 것을 갖고 있습니다. 날씨가 맑고 따뜻하고, 바다와 나무가 아름다운 것까지 다 갖고 있습니다.

어제 아제르바이잔의 국립묘지와 전 대통령의 묘소를 들렀습니다. 그곳에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있었고, 이 나라를 새 나라로 만들기 위해 땀 흘려 노력한 많은 지도자들의 묘지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아제르바이잔이 독립된 자유의 나라로서 미래 역사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국민들의 꿈이 있었고, 아제르바이잔을 영원히 남에게 지배받지 않고 행복한 나라로 만들려는 지도자들의 염원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그런 국립묘지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나라를 위해,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목숨 바친 많은 이름없는 사람들의 묘소가 있습니다. 저는 자랑스런 역사의 한국이 있기까지는 그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열정이 뒷받침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제르바이잔에 와 보니 한국이 갖지 않은 더 큰 행운과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석유입니다. 그리고 그 석유가 지정학적으로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오전에 알리에프 대통령은 “석유는 하나의 밑천일 뿐이다. 우리는 석유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회에 도로·항만·발전소·도시건설·제조업·IT 등 모든 분야에 투자하고, 그것을 통해 아제르바이잔이 석유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라 고도의 사회간접자본시설과 기술을 가진 훌륭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아제르바이잔이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믿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오면서 거리 곳곳에 선 많은 타워크레인을 봤습니다. 한국 경제가 발전하고 성공을 거둘 때 봤던 모습과 너무도 흡사했고, 저로 하여금 활발하게 건설하고 발전해 가던 그때 기억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저는 알리에프 대통령에게 한국은 아제르바이잔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의 성장과 발전의 기회가 한국에게도 좋은 기회가 되도록 협력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제르바이잔 경제인 여러분,

저희에게 그런 기회를 나눠 주시겠습니까? 그저 달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우리도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우리도 아주 가치 있는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폐허가 된 상태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경험이 있습니다. 남의 나라에서 많은 것을 가져다 축적한 부를 통해 계속 앞장서 온 나라가 아니라 남의 나라보다 뒤늦게 출발했지만 열심히 달려 앞선 사람을 따라잡은 나라입니다. 지금 정보통신 분야는 세계 1등입니다.

또한 우리 한국이 가진 경험은 100년 전, 50년 전 경험이 아니라 불과 20~30년 전의 생생한 경험입니다. 이 같은 경험은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학자, 국민들 모두 함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국민들은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통계가 그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기업인 여러분,

한국과 협력하고 싶지 않습니까? 옆에 앉은 우리 기업인과 손을 잡으십시오. 우리 기업인들은 도전정신과 열정, 부지런함으로 오늘을 일군 소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의 기업은 '계약서+30%' 라는 알파를 더 지급하는 기업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유럽에서 가정에 TV를 한 대 사서 설치하는 데 며칠 걸리는지, 사무실을 내고 컴퓨터 시스템을 설치하는 데 며칠 걸리는지 아십니까? 컴퓨터를 주문하면 며칠이나 걸려야 배달되고, 선이 연결 안돼 기술자를 부르면 저녁 6시가 되면 근무시간이 끝났다고 그 다음날 와서 다시 연결해야 되는 정도로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느냐고 불평하면, 계약서를 내보이면서 계약대로 했지 않느냐고 반문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오전에 TV 주문하면 오후에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컴퓨터를 주문하면 내일 일할 수 있게 해 줍니다. 계약서에는 없지만 해 줍니다.

한국은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할 것입니다. 아제르바이잔과 같은 좋은 친구를 원하고, 함께 협력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과 잘 협력하십시오. 그것이 제 바람입니다. 법과 제도가 다르고 관습이 달라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교류·협력의 장애는 양국 정부가 열심히 노력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알리에프 대통령과 회담한 자리에서 장관들이 나와 일곱 개 협약에 서명했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시간에 비하면 아주 빠른 성공입니다. 몇 개 더 서명할 수 있었는데 두 정상이 시간이 많지 않아 7개만 했습니다.

또한 저는 알리에프 대통령을 한국으로 초청했습니다. 내년쯤 올 것으로 짐작하고 있지만 더 빨리 오시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이에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대통령이 한국 올 때 또다시 협정 서명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이 주한대사관을 올해 안에 개설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주아제르바이잔 대사관도 내년 중에 개설하려고 했는데 올해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 속도에 있어 아주 빠른 나라라고 자랑했는데, 아제르바이잔에 와 보니 한국보다 더 빠른 나라가 있어 한국이 자랑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도전정신과 열정을 함께 나누며 믿고, 가슴을 열고 서로 협력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